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7차 회의		일 시	2018.2.5.(월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김인준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		
불참위원	이호선 위원		
의 제	2018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·의결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18 본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안건으로 함.

2. 2018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지난 회의 학교 측에서는 졸업 준비 비용 및 실험실습비와 관련한 사항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하였음. 단과대학 이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것인지, 있다면 어디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관련 문제는 특정 본부 부서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며, 단과대학에서 학장, 학부(과), 전공 주임교수와 학생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 사항을 본부에 요청하거나 특정사업예산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.
- 조형대, 예술대 등은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만큼 교육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학교 측의 입장과 다름. 따라서 실험실습비 등 단과대학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단과대학에서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졸업요건에 대한 결정이나 관련 비용 절감에 대한 사항은 본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며, 각 단과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.
- 이번을 계기로 단과대학 측과 학생 측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학생처에서 자리를 마련해보겠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지속적인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. 단과대학, 학생회 그리고 학생처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겠음.
- 2018학년도 본예산(안) 관련 예년에 없던 조경관리비가 포함된 이유와 학부 생협 장학금 및 단과대학 역량강화사업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조경관리비는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 관리해야 할 수목이 많기 때문임. 학부 생협 장학금은 생협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로 진출된 것임.
- 단과대학 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과대학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서는 소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신축 건물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용도가 있는 지, 박물관이나 평생교육원,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.
- 과학기술대학 일부 학과가 신축 건물로 이동한다면 과학관의 유휴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보다는 학생 교육 공간에 대한 수요가 시급하므로 기본적으로 강의 및 연구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임.
- 과학관에 여유 공간이 생기더라도 과학기술대학에서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므로 유휴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움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외부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.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본예산(안)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기부금은 이미 학교로 전달 받았으므로 2017학년도 결산에 반영될 것임.
- 도서관 외부에 쉼터를 건설하고 3D 프린터실, 열람실 등으로 활용하며 도서관 지하와 연결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과 제로원디자인센터 관련 학생지원비가 증가하였음. 평생교육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데 학생지원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등은 수입의 일부를 대학 본부에 넘기고 남은 수입 규모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.
- 평생교육원 학생지원비는 학생 수의 증감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평생교육원 운영 전략에 따라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신규 전임교원 수와 퇴직 교원 수를 비교하면 신규 교원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법정부담전입금이 추경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경 이후에 2017년 최종 법정부담금전입금을 다시 예측하였으며 추경 대비 법정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에도 그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일반적으로 퇴직 교원의 급여가 신규 교원 보다 높으므로 인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감소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사우디 정부 장학기부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타국고지원 장학금에서 장학금 국고보조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우디 정부에서 국비지원 장학생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음에 따라 기존 학생이 졸업한 후 신입생이 입학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기부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.

- 장학금 국고보조는 국가유공자, 새터민 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의미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생협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에는 신규 교지, 교사 확충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이자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2018학년도에는 인출 금액을 다시 예금으로 환원하였으므로 이자 수입이 증가함.
- 생협 기부금은 장학금과 같이 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학교 수입에 포함되어 사용됨.

■ 배수현 차장

- 생협 기부금은 학생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크며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학생지원비,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사용됨.

■ 위원장

-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해 위원들의 기타 의견이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사항은 없으며 외국인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전달한 외국인 등록금 관련 서명 자료를 학교 측에 전달함.
- 타지에서 어렵게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 대표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임. 그리고 법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답답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대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대학 환경 속에서 타대학과 경쟁해야하는 점을 감안해주기 바람.
- 대학의 예산은 감사원, 교육부, 회계법인 감리, 기타 정부산하기관의 감사 등을 받으므로 투명성이 높으며,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므로 함부로 집행되지 않음.

3. 심의 및 의결 사항

- 2018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함.

-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잉여금 발생 시에는 학생경비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논의하기로 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8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2. 5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